

파리로 인한 질병피해 심해진다

- 농장주변 방역에 힘써야 -



오 세 을 본회 포천채란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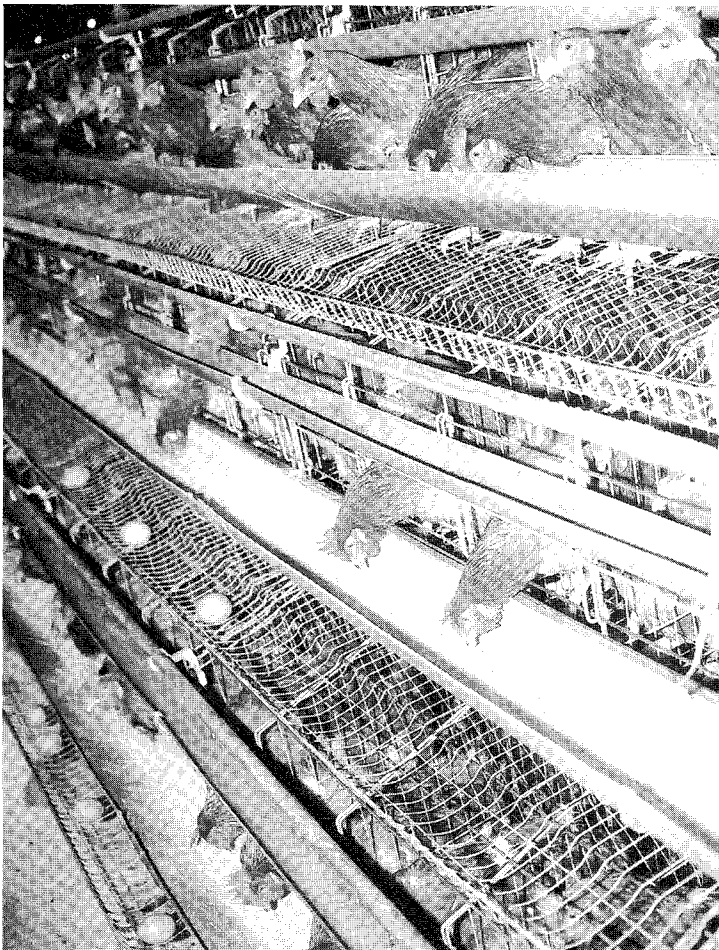
현 재 닭 질병이 만연하여 고난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 숫자는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계란 값은 예년에 비하여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 농장의 생산성은 예상외로 떨어져 있다. 이유는 ND, IB, 저병원성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농장에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소독을 하고 차단방역을 하며, 예방접종을 자주함에도 산란율은 감소하고 폐사는 증가하며, 계란의 질이 떨어진다. 때때로 ND인지 인플루엔자인지 그 원인이 불확실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혈청검사를 해야 비로소 일부 판명이 나기도 한

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의사들은 닭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곤 한다.

모처럼 호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5월 1일부터 파리방제용 첨가제를 사료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사료관리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5월 1일부터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파리를 방제하여야 한다. 파리는 온갖 오염된 곳을 찾아다니므로 많은 질병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혐오감까지 주고 있다. 1960~1970년대에 파리 방제제를 넣지 않았던 당시를 기억해보면 참으로 끔찍하고 앞으로

많은 걱정이 앞선다. 파리를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살충제 밖에 없는데 어떤 종류의 살충제가 파리방제용으로 적합한지 현재 일반 양계경영자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양계협회나 농림부 축산국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제시하고 축산농가는 이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이정표 마련이 시급하다. 개별 농가에서는 5월 1일 이전부터 미리 계분이나 농장 오염원이 되는 곳을 파악하여 파리방제용 살충제를 철저히 뿌려야 할 것이다.



파리 1마리의 1회 산란수는 100~150개로 일생동안 5~20회 산란한다. 알의 부화 기간은 최적 환경에서 약 6~12시간이며, 유충은 10~45℃사이의 온도에서 발육이 가능하고, 최적 온도는 36℃이다. 유충은 2회 탈피하여 3령기를 거쳐 번데기가 되는데, 최적 조건에서 유충기간은 4~6일 소요된다. 성숙한 유충은 먹이 섭취를 중지하고 번데기화할 장소를 찾기 위해 야간에 서식 장소에서 나와 비교적 건조한 흙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번데기화 한다. 번데기의 기간은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4~5일이고, 기온이 낮으면 1~2주로 연장된다. 이렇듯 파리의 일대기는 매우 빠르고 짧다. 즉 그만큼 번식력이 굉장하다고 볼 수 있다.

파리는 파란, 폐계와 같은 곳을 좋아하여 여지없이 그러한 곳에 알을 낳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아무 곳이나 방치하면 안되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즉 위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가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파리에서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각 농가들의 질병과의 싸움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파리방제용 살충제를 계분장, 계사, 계란선별장 등에 계획을 세워서 날짜별로 방사해야 한다. 그리고 파리약(살충제)이 계란 등에 묻지 않도록 계란을 다 꺼낸 후에 방사하며, 계란 선별장에

| 특집 · 파리방제용 사료첨가제 제한에 따른 농가피해 사례 |

도 계란에 파리약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별장에는 가급적이면 수동식 분무기로 방사하는 것이 좋다. 닭장에 파리약을 살포할 때는 사료나 물통에 파리약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닭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뿌리는 라바텍스를 계분 등애다 정기적으로 살포한다고 한다.

여름철이 오면 가급티푸스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장주변을 깨끗이 하고 특히 계분 깊이 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폐계나 파란 등은 매일 수거하여 묻고 그곳은 수시로 소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파리의 행동 반경은 수백m에서 수십km 까지이다.

강원도의 파리가 경기도까지 자동차를 타고

올수가 있다. 타농장에 방문할 때에는 자동차문을 잘 닫고 창문도 잘 올려야 할 것이다.

올 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벌써부터 기상관측을 한다. 파리는 더위를 좋아한다. 그리고 불결하고 지저분한 곳 오물 등을 특히 좋아한다.

요즈음 양계협회에서 활발한 홍보에 힘입어 계란소비도 약간 늘은 것 같다.

파리를 퇴치하는 것은 좋은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가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파리 퇴치는 물론 질병과의 싸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양계업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양계**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한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한다.
3. 사용 용량을 반드시 지킨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한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지킨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않는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한다.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인다.
9.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한다.
이 기록은 시장출하와 치료시에도 필요하다.
10.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인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움을 청한다.